

■ 무중량(無重量) 경제의 도래와 특징

- (무중량 경제) 정보통신 및 생명공학과 같은 첨단 기술의 발달에 따라 超경량 및 極소형 제품과, 정보와 서비스 등 무형 상품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획기적으로 증가한 경제. 이는 지식 기반 경제의 한 특성이라 할 수 있음
- (특징) 생산 활동을 위한 특정한 생산 공간의 필요성 약화, 인간의 창의성과 지적 능력 중시, 사회의 불안정성과 불평등도 증가, 정부 기능의 축소와 재조정
 - 컴퓨터와 통신의 발달로 재택 근무, 이동(mobile) 사무실, 가상기업 등의 보편화
 - 주어진 자원의 양보다 이를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경쟁력 원천
 - 실업 증가, 직장의 안정성과 국가의 사회보장 능력이 약화되어 개인이 직면하는 위험 부담 요인 증대, 소득의 불평등도 확대 등의 문제 발생
 - 국가간 정책 협조, 교육, 인프라 구축, 권한 위임 등이 정부의 주요 역할로 등장
- (시사점) 기업은 정보통신 및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현실에 주목해야 하고, 정부는 사회의 창의성을 살리기 위해 규제보다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하며, 개인은 자신이 직면할 다양한 위험 부담 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준비가 필요함

무중량(無重量) 경제의 도래와 특징

이 글은 「Diane Coyle, *The Weightless World: Strategies for Managing the Digital Economy*, The MIT Press, 1998」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경제 활동의 변화와 영향, 정부의 새로운 역할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음

□ 무중량 경제의 의미

- 무중량 경제란 첨단기술의 발달에 따라 초경량(超輕量) 및 극소형(極小形) 제품과, 정보와 서비스 등 무형(無形) 상품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획기적으로 증가한 경제를 가리킴
 - 과거에 중시되었던 자동차, 철강, 기계, 가구, 석유 등의 제품은 용량이 크고 무거울수록 가치도 높았지만, 최근의 전자, 정보통신 등 주력 제품들은 용량이 작고 무게가 적을수록 가치가 높아짐
 - 또한 정보, 금융, 디자인, 서비스 등 무중량 상품들의 비중과 부가가치 창출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최근의 특징임

< 무중량 경제의 이해 >

구분	기존 경제	무중량 경제
주요산업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 가구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금융, 서비스
고부가가치 제품	부피와 중량이 큰 제품	중량이 작고 형체가 없으며 이동성이 큰 제품
핵심자원	천연자원, 인력, 자본	창의성, 지적능력, 신소재
정부정책	금리, 환율, 조세, 정부지출	국가간 정책협조, 교육, 인프라 구축, 규제 대상 선정, 실무단위에 권한의 위임
주요문제	경제의 저성장과 미개발	사회의 불안정성 증가, 불평등도 증가

- 최근의 경제 변화를 표현하는 글로벌화는 無중량화(weightlessness)가 초래한 현상의 일부일 뿐이며, 현재의 변화를 정확하게 포착하는 개념은 아님
 - 글로벌화는 국가간 교역의 증대나 규제 완화 등의 요인에 의해 촉발된 것이 아니라 경제의 無중량화라는 새로운 동력에 의해 초래된 현상에 불과함
 - 현재 변화의 본질을 글로벌화로 간주하게 되면 변화에 대한 대응책도 자유 무역 실현, 지역간 통합, 규제 완화 등으로 축소됨¹⁾
 - 따라서 현재의 변화는 글로벌화가 아니라 無중량화로 표현해야 적절함

□ 무중량 경제 시대의 특징

- 첫째, 생산 활동과 생산 공간간의 밀착 관계가 해체됨
 - 컴퓨터와 통신의 발달로 작업이 반드시 작업장이나 사무실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없어졌음. 즉 재택 근무, 이동(mobile) 사무실, 가상기업 등과 같이 작업과 작업장의 분리가 일반화됨
 - 생산 활동이나 경제 활동도 전적으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에 고착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없게 됨. 자본의 자유화와 글로벌화가 이를 보여주고 있음
- 둘째, 천연자원이나 자본보다 인간의 창의성과 지적 능력이 경쟁력 원천이 됨
 - 과거의 경쟁력을 좌우했던 것은 천연자원이나 자본의 양과 규모였지만, 無중량 경제에서는 주어진 자원을 활용할 줄 아는 인간의 창조성과 지적 능력이 경쟁력 원천임
 - 그리고 주어진 자원과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하는 '속도'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됨
- 셋째, 불안정성과 불평등의 정도가 증가함
 - (불안정성) 無중량 경제는 급격한 변화를 특징으로 하므로 여기에 적응할 수 없는 인력의 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국가와 기업 등 조직이 담당했던 사회 복지 기능이 약화되어 개인의 위험 부담 요인이 증가함
 - (불평등성) 개인의 능력에 따라 소득의 격차가 매우 커지는 '수퍼스타 경제'(superstar economics)가 스포츠, 영화, 연예 등 일부 영역에서 점차 사회 모

1) 실제 글로벌화 수준을 교역, 해외투자, 이민 등의 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해 보면,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커다란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움

든 영역으로 확산됨²⁾. 無중량 경제에서는 누구나 슈퍼스타가 될 수 있고, 슈퍼스타가 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매우 저렴해진다는 특징이 있음

- 넷째, 무중력 경제는 정부보다 시장에 더 큰 힘을 부여하게 되므로 정부의 새로운 역할과 정책이 필요하게 됨
 - 인터넷 공간에 의한 세계 상거래 공간의 동질화와 탈국경화에 따라 일국 수준의 경제 정책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고, 국가가 담당했던 사회보장적 기능도 점차 축소됨. 예를 들어 사회 보장 강화를 위해 조세부담을 늘리면 자본과 인력은 조세부담이 가벼운 해외로 이동하게 될 것임
 - 경제 정책의 주요 도구도 지금과 같은 금리, 환율, 조세, 재정지출 등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이 아니라 국가간 정책 협조, 교육, 인프라 구축, 규제 대상의 합리적 선정, 실무 단위 조직으로의 주요 권한 위임 등이 될 것임

□ 경제 주체별 대응 방안

- (기업) 주력 산업과 경쟁력 원천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 투자와 요소 투입이 필요한 중화학 부문에서 정보통신 및 서비스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기업의 경쟁력 원천도 인간의 창의성과 지적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창의적 인력의 발굴과 교육 투자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정부) 無중량 경제에서는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 규제 중심의 정책은 자본과 인력의 대외 유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 설계가 필요함. 정보인프라 구축, 교육 투자 등이 주요 과제임
- (개인) 無중량 경제 적응을 위한 자기 개발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배양해야 함
 - 無중량 경제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성 확보를 위한 자기 개발과, 불안정성과 불평등도가 증가하는 사회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능력이 필요함

■ 강용중 연구위원 klucas@hri.co.kr ☎724-4046

2) 실제 미국의 권위 있는 여론조사기관인 State of Working America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19 이후 미국의 소득 분포의 불평등도는 느리긴 하지만 점점 심화되어 온 것으로 나타남